

## 新時代의 展望 인테리 問題 ; 不安의 精神과 「인테리」의 將來[上]

박치우(朴致祐)

### 不安의 由來

知識의 近代的 商品化가 始作된 後 新興 市民層의 거의 無制限한 知的 需要는 一時마치 知的 被□人近代的 인테리겐차의 黃金時代를 形出한 感이 不無하였으나, 멀지 안허 닥쳐온 需要의 不可避한 退勢는 他方知的 勞動群의 生産過剩과 아울러 畢竟은 今日과같은 인테리겐차의 大□의 顛洛을 結末짓고야 말엇든 것이다. 이리 하여 오늘날의 인테리겐차는 昔日의 華麗와는 比할길 조차없이 勞動과 報酬의 關係에 잇어서 完全히 一個의 勞動者로서 自身의 延命을 苦謀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이니, 그들의 不安, 集□, 絶望 等 모든 精神的 苦惱는 實로 이 같은 物質的 顛洛에서 由來된 必然的인 悲劇임에 不外한다.

◇ . . . 眞實理想과 希望과 目的에서 여지없이 버림받고 如何한 『明日』도 喪失當한 이 絶望的인 生存에게 必然的으로 닥쳐올 것은 무엇일까? 絶望的인 不安! 이것 이엇을 따름이리라. 外的 破産에 應하여 內的破産이 오고야 만 것이다. 生이냐 死냐 하는 最後的인 物質的 「此이냐 彼냐」에서 精神的 「此냐彼냐」가 오고야 만 것이다. 이거야말로 「키에르케코-르[키에르케고르]」의 所謂 「此냐 彼냐」가 아니면 무엇이랴! 「야스펠스」의 이른바 「極限狀況」이 아니면 무엇이랴! 不安의 文學, 不安의 哲學이란 實로 다른 것이 아니다. 요 때의 인테리의 요 狀態의 「이데오로기[이데올로기]」의

◇ . . . 表現以外에 아모 것도 아니다. 이것은 果然 나 한 사람의 獨斷에 不過한것일까?

「막다른 골목」에 서게된 이 絶望的인 生存의 極度の 不安에서 나올자는 暗黑, 虛無 이것이 잇을 따름이다. 絶望的인 不安에서는 無밖에는 생길 道理가 없겠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不安의 哲學者 「하이텍겔」의 다음과 같

은 말의 참 뜻을 깨달아야 한다.—「不安은 無를 顯示한다」 「不安에 있어서 無는 顯示된다」等等.

或은 말하리라.—「키에르케고—르」의 「此냐彼냐」나, 「야스펠스」의 「極限狀況」, 「하이텍겔」의 「無」와 같은 것은 純全히 形而上學的 述語임에도 不拘하고 이 같은 世俗的 意味로 使用함은 哲學의

◇ . . . 尊嚴性을 冒瀆함도 甚한 者라—고. 그러나 이만한 冒瀆은 元來 不可避한것이니 그들이 哲學의 傳統과 修辭法에 좇아서 假令 (H2O)라고 規定했던것을 내가 여기서 常識의 傳統과 修辭法을 좇아서 設使 「물」이라고 解釋하였던들 무엇이 不當하단말인가? 問題는 다만 이들 哲學者들의 職業上暗號를 日常的 用語로 解□함에 있어 서의 成功與否에 달릴 뿐이리라.

어쨌든 以上の 哲學者들의 所謂 「此냐彼냐」라든지 「極限狀況」이라든지, 「無」라 던지 하는 것들은 日常的 用語로 움질진댄 「막다른 골목」을 意味함에 틀림없다. 同一한

◇ . . . 意味에서 우리는 「웨스토프」의 「不安」 「虛無」 「無」 「深淵」 「突然」 「□」 「絶望의障壁」 「第二視覺」 「地下屋의 사나히」等等의 參된 意味도 이리하여서만 남김없이 理解될것이 오프는 「지—드」의 「베르날」도 決코 다른 것이 아니라 요 時代의 인테리의 絶望的인 自己 表現以外的 아모 것도 아닌 것을 알리라. 이러케 봄으로써만—眞實로다만 이리하여서만 우리는 오늘의 所謂 「不安의 文學」 「不安의 哲學」이 왜 이 世代의 젊은 知識人의 心根을 이같이 深極히 사로잡고 잇느냐에 對한 어김없는 認識을 가질 수 있으리라. 近者는 特히

◇ . . . 知識人들 사이에서 거의 狂的에 가깝도록 「하이텍겔」 「야스펠스」의 哲學이—「푸루—스트[프루스트]」 「자—드」의 文學이—「웨스토프」의 不安의精神이—그나 그뿐인가 새삼스러히 「니—츨」 「키에르케골—르」 「도스토에프스키」—가 새로운 情烈로써 論議됨은 무슨 까닭인가? 다름 아니다. 이를 一聯의 「不安의 思想家」들의 敎說에서 오늘의 인테리겐차는 不安과 絶望에서 헤매는 바로 그 自身の 肖像畫를 發見하기 때문이다. 不安의 文學 不安의 哲學의 現代的 意義가 바로 여기 잇는 것이며 그에 對한 假借 없는 檢討가 强要되는 原因도 또한 여기 잇는 것이다.